

광주 직업계 고교생 절반 “지역 남고 싶지만 미래 불안”

졸업 후 진로 1순위는 ‘취업’

응답 56% “광주 취업 희망”

안정적 직장 선호 경향 뚜렷

광주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졸업 후 타 지역으로의 이동보다 고향인 광주에서의 정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지역 안착을 가로막는 ‘정보의 비대칭’과 ‘일자리 질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광주인자위)는 30일 지역 내 직업계고 재학생들의 취업 인식과 선호도를 분석한 ‘2025년 광주지역 직업계고 취업선호도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직업계고 학생 310명과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령 인구 감소와 인재 유출 위기 속에서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학보다 취업”...44%는 여전히 ‘탈광주’ 고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계획 1순위는 ‘취업’(47.7%)으로 조사됐다.

‘대학 진학’(31.2%)이나 ‘선취업 후 진학’(9.4%)보다 현장 진출을 희망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특히 희망 취업 지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6.1%가 ‘광주지역’을 선택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지역 사회에 대한 애착과 정주 의지가 비교적 높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나머지 43.9%의 학생은 여전히 타 지역 취업을 고려하고 있어,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광주 지역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다른 지역이 일자리도 더 많고 미래 전망도 좋아 보여서’(50.7%)가 절반을 넘었다. 이어 ‘원하는 일자리가 광주에는 없는 것 같아서’(18.4%), ‘급여나 복지 수준에 대한 우려’(5.9%) 등이 뒤를 이었다.

◇취업 키워드는 ‘안정성’과 ‘기술직’

학생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복수응답)은 ‘회사의 안정성’(56.1%)이었다. 고물가와 경기 불황 속에서 높은 연봉(49.4%)이나 적성(46.5%) 못지않게 오랫동안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이다.

희망 직종에서는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기준 ‘설치·정비·생산직(전기·전자 포함)’이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광주의

주력 산업인 제조·생산 분야와 맥을 같이 한다.

◇정보 격차 해소와 정책적 인센티브 절실

취업 준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정보 접근성’이 꼽혔다. 학생들은 ‘취업 정보나 조언을 얻기 어려움’(29.0%)을 1순위 애로사항으로 지목했다. 자격증 준비 및 실습의 어려움(23.9%)과 준비 비용 부담(23.9%)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이 구직 단념이나 타지 유출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의견도 일맥상통했다. 교사 60명 중 54.2%는 ‘고졸 채용 확대 및 지원 정책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한 지역 기업 취업 시 주거 지원이나 장려금 등 ‘다양한 혜택 제공’(22.0%)이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인자위 “지역 정착 위한 4대 정책 추진”

광주인자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고용 생태계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취업 선호 직종과 AI·에너지 등 지역 전략 산업을 연계한 훈련 확대 ▲임금·복지 개선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확산 ▲취업·훈련·기업 정보를 통합한 ‘원스톱 취업 정보 플랫폼’ 구축 ▲지역 기업 참여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임채만 기자



박물관 문화상품 ‘뭇즈’, 매출 400억원 첫 돌파

국립박물관의 문화상품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30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 따르면 박물관 문화상품 ‘뭇즈’(MU:DS) 연간 매출액은 최근 4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점에서 관람객들이 박물관 문화상품 ‘뭇즈’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미래금융 강화’ 조직개편·임원 인사

영업력·전문성 갖춘 인재 발탁

신성장전략본부·AI혁신부 신설

광주은행은 30일 본부 조직개편과 함께 부행장보 5명(강지훈, 김홍화, 김원주, 박성민, 박대하)을 신규 선임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기존 임원 5명(이강현, 박성우, 김재춘, 임양진, 김은호)의 퇴임에 따라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내부 인재를 전면 배치해 조직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자산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여성 임원을 추가 발탁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의 여성 임원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현장 성과를 두루 갖춘 내부 인재를 임원으로 선임해 조직의 연속성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했다.

광주은행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사업별 전담 조직을 신설·재편하고, 업무 실행력과 집중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주요 내용은 ▲신성장전략본부 신설 ▲투자금융본부 확대 ▲AI 혁신부 신설 ▲자산관리본부 통합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성장전략본부’ 신설이다. 전략대출, 자산담보대출, 외국인금융 기능을 통합한 핵심 사업 전담 조직을 구축해 전문성과 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

대된다.

아울러 IB 전문은행으로의 도약을 위해 ‘투자금융본부’를 확대 개편했다. 부동산 PF와 비부동산 IB 조직을 분리하고, 인수금융, ABL, 메자닌, Equity 등 전담 조직을 강화해 투자금융 전반의 전문성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한층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First 경영체계 본격화를 위해 ‘AI 혁신부’를 신설했다. AI 전담 조직을 통해 여신·영업·리스크·컴플라이언스 전 과정에 데이터·AI 기반 의사결정을 확대하고, 전사적 업무 혁신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객 자산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자산관리본부’를 신설하고 카드·WM·신탁 기능을 통합했다. 이를 통해 고객 생애주기 기반의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은 물론 비이자수익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은행은 이번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통해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중심의 성장 구조와 IB·AI 기반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는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성장을 위한 구조적 변화”라며 “미래 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경쟁력 있는 지방은행 모델을 정립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한전KPS, ESG경영 혁신대상 ‘AI 특별상’ 수상

AI 도입 ESG경영 고도화 성과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지난 29일 대한민국ESG경영혁신대상위원회가 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한 ‘2025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에서 ‘AI 기반 ESG 경영 우수사례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ESG경영 혁신대상은 국내 기업의 ESG 경영 성과, AI 기반 ESG 혁신 등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기업을 발굴해 시상하는

대회다.

수상기관은 공시자료 등을 통한 기본평가와 ESG 관련 법률, 회계, 학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층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심사에서 한전KPS는 적극적인 AI도입을 통한 ESG경영 고도화 노력을 인정받아 본상과 별도로 시상하는 ‘AI 특별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실제 한전KPS는 발전설비 정비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원전

고방사선 작업자 피폭저감을 위한 AI 검사로봇 도입 등 안전보건 분야에서 적극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했다.

김홍연 사장은 “ESG경영이 AI와 만나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전KPS는 정비현장과 경영일선 곳곳에 디지털 전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경제 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스마트 정비체계 구축과 AI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채만 기자

농협광주본부, 연말 복지시설 우리쌀 나눔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30일 “최근 동구에 위치한 무등육아원에서 연말을 맞아 농업인 실익 증대와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해 광주지역 14개 복지시설에 우리쌀 2천만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현호 광주지역본부장, 김연수 동구청 마을자치과장, 심은정 무등육아원 사무국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지원은 농협재단이 추진하는 ‘우리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의 지정 기부금을 재원으로 마련됐으며 우리쌀 소비촉진을 통해 농업인의 실익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이현호 본부장은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상생으로 이어



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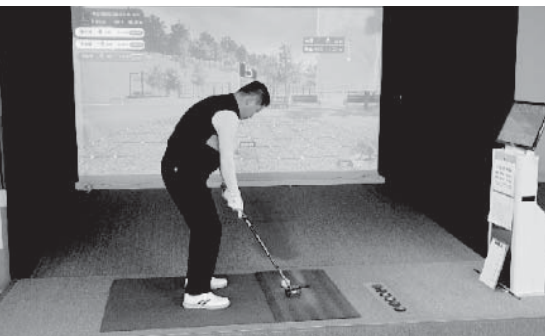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지도자 1·2급과정 교육 희망자 모집

교육과정			
2 급 지도자 과정	28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1 급 지도자 과정	36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초급완성반과정	12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15회	1:1지도/3회 사전예약
초급원포인트과정	6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6회	1:1지도/2회 사전예약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합격시까지 그 외 비용 일체 없음
* 접수 즉시 이론교재 및 예상문제지 배송 실기실습/실내실습장 합격시까지 무료교육

교육시간 평일(토)오전 09시~ 오후 19시까지(일)/휴무

접수문의 T. 062-369-0070 M. 010-9163-7897

접수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772601-01-794141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